

위기에서 회복으로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연설

To order a printed copy, please click [here](#).

To download a low-resolution pdf, click [here](#) or go to the [Newsdesk site](#).

21세기의 도전은 단결된 대응과 모든 국가의 공동책임을 요합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은 위기에서 회복으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런던에서 G20가 개최되었을 때, 세계는 수 세대 동안 가장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G20는 그 규모와 효과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련의 협력적 정책 행동을 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공황 직전에 놓여 있는 세계 경제를 구출했으며, 이제 세계적인 회복의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장이 되살아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이 2009년 및 2010년에 약 2,100만 개의 일자리를 구제하거나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G20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한편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피츠버그에서 우리는 또한 일단 회복과 견실한 글로벌 성장이 돌아오면 우리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했던 과거의 위험한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새로운 틀을 법제화하고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개혁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 일련의 정책은 재편성된 글로벌 경제 구조에 입각하여 유지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는 기타 국가들을 포함한 G20 지도자들은 최빈곤국을 돕기 위한 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노력은 에너지 보존을 촉진하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렇게 많은 나라가-G20가 세계 총생산량의 85%를 차지합니다-서로 각국의 경제 계획의 영향과 일관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혁을 위한 최선책에 대해 합의하고, 모든 국가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글로벌 수요의 필연적 재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츠버그가 역사상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세기의 접근법으로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이익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동참의 시대, 각국이 저마다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가 외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츠버그에서 이룩한 강력한 협력입니다.

그리고 G20가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형성하는 데 앞장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종 제도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속한 신흥경제국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식량 안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은행 신탁기금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했으며, 그에 힘입어 오늘날 G20는 가장 중요한 국제 경제 협력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G20의 이러한 변화는 국제 금융기관에 속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더 큰 발언권과 더불어 미국이 21세기에 추구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수용적인 노력을 확연하게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구제하는 단계에서 전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한국은 올해 G20 개최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리의 도시로 불리는 피츠버그의 신화에 힘입어, 우리는 진정한 21세기 경제로 넘어가면서 세계적 회복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동이익을 더한층 촉진하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